

“KTX 혁신도시역 신설보다 익산역 활성화를”

정현을 익산시장 성명 ... 시민단체·상공인 합세

“저속철화·지역균형 발전 저하 등 소탐대실 우려”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지역 시민단체와 상공인 등도 합세하고 나섰다. 지역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 시민단체,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KTX혁신역신설추진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혁신도시역 신설추진을 도모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모든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익산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3개 노선이 분기하는 곳으로, 신설보다 익산역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고속철도역 간 적정거리를 57.1km로 언급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를 인용, “익산역과 1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전북혁신역이 신설될 경우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모든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익산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3개 노선이 분기하는 곳으로, 신설보다 익산역 활성화와 광역교통망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또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KTX혁신역신설추진반대 투쟁위원회는 익산시원로회, 익산상공회의소,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익산공장발전협의회,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군산 새만금컨벤션, 전북 유일 마이스산업 대표공간 자리매김

학술대회 매년 150여건 등 '500만 관광객 유치' 선도

군산시가 전북지역 유일한 컨벤션센터를 활용,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고군산 군도로 대표되는 새만금 해양관광과 근대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군산시간 여행마을을 아우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광역화를 이끌어 나갈 핵심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게 군산시 구상이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지스코)는 지난 2014년 7월 개관 이후 매년 15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치르며 대표적인 마이스산업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년간 지스코를 찾은 방문객들은 7만3928명에 달했고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536억원에 이른 것으로 군산시는 추산했다.



지난해 군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군산아트페어 & 핸드메이드페어'. 예술인 판로개척과 지역민 문화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 제공>

올해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비롯,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 외국인일자리창출포럼 등 11건의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박람회도 잇따라 ▲전북팻산업박람회(3월) ▲군산핸드메이드페어(5월) ▲전북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6월) ▲리틀아인슈타인 어린이과학캠프(8월) ▲새만금요도캠핑페스티벌(10월) 등이 지스코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목표로 내세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시컨벤션 관광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스코에서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 국제관광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스코를 중심으로 한 전시컨벤션 관광은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순창군 마을택시 이용 대폭 확대

순창지역 마을 택시 이용 기회가 확대됐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10일부터 오지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 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이나 버스승강장부터 마을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

은 48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고령화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1400원만 내고 택시를 탈 수 있고 버스 승강장까지 오래 걷지 않아도 돼 장애인이나 병원을 오갈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용횟수가 정해져 서비스를 확

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순창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한도를 늘렸다. 기존 20명 미만인 마을의 경우 월 15회에서 30회로,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회에서 40회로 확대했다. 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월 30회에서 60회로 늘렸고 인구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마을의 경우 40회에서 80회로, 인구수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회에서 100회로 확대했다. /순창=장영민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음식물 쓰레기 월~금요일까지 수거

고창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군은 음식물쓰레기 토요일 수거 방침이 바뀐데 따라 홍보 전단지과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i@

남원시 모든 공무원 민원 해결사로

생활 불편 사항 즉시 해소

남원시 전 공무원이 생활민원 해결사로 나선다. 남원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생활현장 통신원으로 지정해 현장의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는 '타이밍 행정'을 펼치겠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현직출장 중 불편사항을 느꼈거나 목격했을 경우 120 민원봉사대에 정보를 제공하면 봉사대가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봉사대가 접수한 민원의 경우 처리결과를 5

일 이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120민원 봉사대는 매주 화·목요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의 농기구 수리, 전기·가스 시설 안전 점검, 미용서비스, 가사도우미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통신원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건립 ... 연말 완공

정읍시가 올해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돌보는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29억원을 들여 정읍시 금봉동 일대 부지(4822㎡)에 지상 2층(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진다. 센터는 단기 쉼터, 검진실, 상담실, 교육실, 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 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치매환자 상담, 조기 검진, 치료 관

리비 지원,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5월 착공, 12월까지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소 2층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무료치매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택시 이용시 콜비 무료 시행

올해부터 군산 지역에서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콜비(1000원)를 주지 않아도 된다. 군산시는 9일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과 택시 앱 카카오택시의 무료 콜 이용자 급증 등을 감안, 호출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무료 콜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의 무료 콜 제도는 '개인택시 콜센터(새만금 콜)'와 '법인택시 콜센터

(희망콜)' 등 2곳이 참여한다. 군산시는 지난해 이들 콜센터를 통한 호출 운행 실적이 연간 52만건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5억2000만원의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콜 서비스가 무료 로 운영되면서 택시 이용자 증가로 이어져 택시업계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부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온실텐트 설치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온실텐트(사진)가 설치됐다. 부안군은 주민 통행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횡단보도 등 3곳에 '오복온실텐트'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오복온실텐트는 가로 3m 세로 1.5m의 크기로, 성인 7~1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투명비닐로 밖이 잘 보이도록 했고 겨울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부안군은 버스승강장에도 바람막이 부스를 설치,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수시



로 손잡을 돌려 겨울철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부안=김민준기자 jun@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출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방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담양군 청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촌면 전 3천여평 포탈 산 75780㎡ 4억
- 함평읍 물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적적합 5억

상가건물

- 고령군 통일면 판선 땅 7061㎡ 판선 267㎡ 8억2천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안집, 은행 1억5천 생활편리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물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물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원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물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우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대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시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건평 297건평 10억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토지구합

1.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도곡온천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2. 화순읍 신기리 만연사 가는길 또는 화순읍 유천리 전대병원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약 2,000㎡ 내외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직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남산단4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창사66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망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